



작전지시 허정무호

덴마크와의 원정 평가전을 앞둔 11일 오후(현지시간) 덴마크 프레데레시아 시의 몬아사 파크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에서 허정무 감독이 지시를 내리고 있다.

Sports

난, 더 이상 황제가 아냐

펠프스, 유럽 쇼트코스 월드컵 'NO 금' 수모

페더러, BNP 파리바스 마스터스 2회전 탈락

'테니스 황제'로 자 페더러(1위·스위스)와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등 두 스포츠 스타가 예상 밖 부진으로 수모를 당했다.

페더러는 12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BNP 파리바스 마스터스(총상금 275만유로) 3

일째 단식 2회전에서 질린 베네토(49위·프랑스)에게 1-2(6-3 6(4)-7 4-6)로 저 탈락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던 페더러는 첫 판에 떨어진 셰이 됐다. 이 대회에 7차례 출전해 매번 8강 이상의 성적을 냈던 페더러로서는 예상 밖의 패배다. 페더라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상대가 웃나 잘했다"고 배운을 인정했다.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은 니콜라스 알마그로(27위·스페인)에게 2-1(3-6 7-6(2) 7-5)로 이겨 16강에 올랐다.

한편 펠프스는 12일(이하 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럽 쇼트코스 월드컵 마지막 날 개인 혼영 200m 결승에서 1분53초93에 물살을 가르며 데리언 타운센드(1분51초79·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초14 뒤진 2위에 그쳤다.

쇼트코스는 롱코스(50m)의 절반인 25m 거리에서 레이스를 벌이는 것으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은 아니며 기록도 따로 관리한다. 펠프스는 앞서 열린 접영 100m에서는 51초06으로 11위에 그치며 결승 진출에도 실패했다.

이로써 전날 자유형 100m와 배영 100m에서 결승에 못 나갔고 개인혼영 100m

에서만 3위를 차지한 펠프스는 금메달 없이 은메달과 동메달만 한 개씩 따내며 대회를 끝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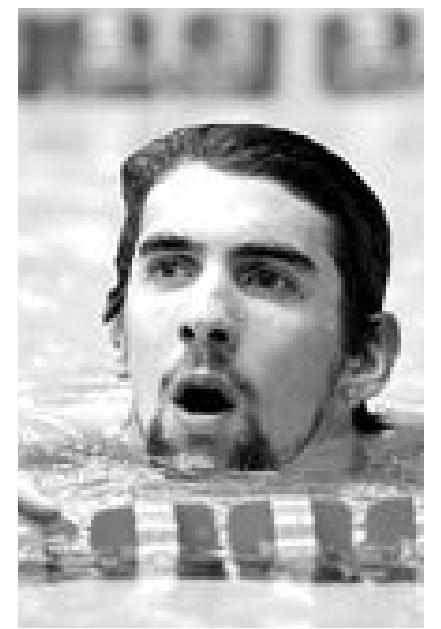
이번 대회에서 최첨단 수영복이 아니라 허리에서 무릎까지 내려온 예전 수영복을 입은 펠프스는 "그동안 규칙적으로 훈련하지 않았다"며 "컨디션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프스는 독일로 건너가 15~16일에는 베를린에서 열릴 쇼트코스 월드컵에서 자유형 200m 세계기록을 빼앗아 간 파울비더만(23·독일)과 맞붙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페더러〉



〈펠프스〉

허정무호 세트피스 담금질

주득점 루트 틈날때마다 갈고 닦아

덴마크와 친선경기 앞두고 첫 훈련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열린 덴마크와 친선 경기를 앞두고 11일 밤 덴마크 2부리그 클럽 FC프레데리시아의 홈 구장인 프레데리시아 모나스 파크에서 훈련했다. 덴마크 도착 후 실시한 첫 담금질이었다.

선수들은 4°C 압축 기온에 훈련 내내 비끼지 내린 곳은 날씨 속에서 1시간10분 가량 뭄을 끊었다. 출국 후 20여 시간이나 이동해 이날 오전 숙소에 도착했던 터라 훈련은 컨디션 조절에 중점을 뒀다.

허정무 감독은 두 페로 나뉘 미니게임을 할 때는 잔디가 젖어 불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문전에서 세밀한 컨트롤에 이은 슈팅을 주문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허 감독은 잠시 세트피스 훈련을 직접 지휘했다. 세트피스는 허 감독이 대표팀의 주 득점 루트의 하나로 특히 강조하면서 틈날 때마다 갈고 닦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상대의 세트피스 공격에 대한 수비 배치를 탈락하게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쯤 상대의 힘을 끊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드릴드 측면에서 공을 차울리면 수비수들이 약속된 움직임을 선보였다. 상대 공격수들이 먼저 골문 앞으로 과고들어 오는 경우를 대비해 오프사이드 트랩도 훈련했다.

허 감독은 "장시간 이동 뒤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썼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돼온 세트플레이에서 선수들 간 호흡, 특히 상대에게 세트피스를 내줬을 때 수비 측면에서 호흡을 맞추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허 감독은 또 "오프사이드 트랩도 적절하게 사용할 생각이다. 경기에서 많이 쓰는 것은 위험 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제공권에서 탈락하게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쯤 상대의 힘을 끊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FC서울 - 전남 드래곤즈 21일 오후 5시

K-리그 6강 PO 일정 확정

프로축구 2009 K-리그 6강 플레이오프 경기 시작 시간이 확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서울과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는 오후 5시, 22일 성남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 일화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오후 2시30분에 시작된다. 6강 플레이오프에 출전하는 네 팀 가운데 토너먼트로 한 팀을 가려 정규리그 2위 포항 스틸러스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21일 경기는 케이블과 위성 스포츠채널에서 중계 예정이고 22일 경기는 KBS-1TV가 생중계한다.

맨유 피지컬 트레이너 국가대표팀 합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수석 피지컬 트레이너가 덴마크, 세르비아와 친선경기를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말로는 1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맨유의 수석 피지컬 트레이너인 토니 스트리드워 씨가 오는 15일 덴마크와 평가전을 앞두고 덴마크 퀄링에 캠프를 차린 대표팀에 합류했다. 스트리드워 씨의 방문은 무를 부상의 여파로 소속팀에서 최근 11경기 연속 결장한 박지성(맨유)의 몸 상태와 그동안의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 대표팀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다. 스트리드워 씨는 이를간 대표팀과 멀다간 이번 주말 영국으로 돌아간다.

/연합뉴스

박칠성 남자 20km 경기 3위

아시아육상선수권

박칠성(27·삼성전자육상단)이 제18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에 첫 메달을 안겼다.

박칠성은 12일 중국 광저우 광동 올림픽 스포츠센터 주변에서 열린 남자 20km 경기 결승에서 1시간24분51초를 짹고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기록인 1시간19분41초에는 5분 가까이 뒤졌지만 박칠성은 리창보(1시간22분55초), 주야페이(1시간22분56초) 등 1~2위를 차지한 중국 선수들 뒤에서 역주를 펼쳐 한국의 노메달 수모를 셧어냈다.

2001년 경기로 입문한 박칠성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41위)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33위)에 참가한 베테랑으로 200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는 1시간24분42초라는 기록으로 은메달을 딴다.

지난달 끝난 제90회 전국체전에서도 1시간24분56초를 짹고 2위에 올랐다. 개인 최고 기록은 1시간20분17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겨냥해 틈새 종목으로 경기를 짹어서 집중 육상할 방침이다.

한편 남자 200m에서는 4명의 한국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다. 전덕형(25·대전체육 유희회)과 여호수아(22·성결대)는 각각 남자 200m 예선에서 21초58, 21초34를 짹고 16명이 겨루는 준결승에 올랐다.

여자 100m에서 두 차례 부정 출발을 범해 실격당했던 기대주 김하나(25·안동시청)도 200m 예선에서는 24초21에 뛰어 무난히 준결승에 올랐다.

다산공인증개사

홈컨트롤파트너리서치

TEL: 062-233-2222 H.P: 010-3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 지역 : 전남·북, 기타지역

■ 용량 : 100KW이상~ 무제한

■ 조건 : 민원해결

개별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증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 전남 담양군 남면 혁신리

- 네이버 과수밭 수령 17년 430주
- 창고 및 30평, 도로 1정밀호

▶ 전남 완도군 흥덕면 16만평

▶ 전남 광주광역시 광진구 광진동

▶ 전남 담양군 담양읍

▶ 전남 담양군 담양읍